어린이날 소록도에 울려 퍼지는 ‘꿈’과 ‘친구여’

조용필-英 필하모니아 한센병 환자들에 음악 선물

英 ‘데일리 메일’ 운영자 미망인 로더미어 부인 추진

조용필

블라디미르

5월 5일 어린이날, 소록도(小鹿島)에 아름다운 감동의 선율이 울려퍼진다.

세계 정상급 교향악단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이하 필하모니아)와 지난 21일 회갑을 맞은 가왕(歌王) 조용필은 이날 소록도 한센병력 환자들에게 아름다운 ‘음악 선물’을 전달한다.

5일 오후 2시 국립소록도병원 내 우촌복지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필하모니아는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을 들려주며 조용필은 ‘꿈’과 ‘친구여’를 선사한다.

지난해 부터 소록도 공연을 준비했던 필하모니아와 함께 최근 협연을 확정한 조용필은 수많은 자신의 히트곡 가운데 따뜻하고 감동적인 메시지가 담긴 곡을 직접 선곡했다.

이번 연주회를 이끄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명지휘자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와 조용필은 출연료를 받지 않고 참여하기로 해 훈훈함을 더한다.

이번 소록도 공연은 영국의 대표적인 일간지 ‘데일리 메일(Daily Mail)’ 운영자이자 비어함스워즈 로더미어(1925~1998) 자작의 미망인인 로더미어(61·한국명 이정선) 부인이 적극 추진해 성사됐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로더미어 부인은 아버지 고향인 함평 시온원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함평 세계나비·곤충 엑스포 홍보대사로도 활동하는 등 전남과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남편 사후 자신의 이름을 딴 ‘레이디 R 재단’을 설립, 케냐와 동티모르 등 세계 각국에서 자선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녀는 지난 2004년 소록도를 처음 방문한 후 지금까지 4차례 소록도를 찾아 한센병력자들을 위로했다.

지난해 6월 소록도를 찾았던 로더미어 부인은 7월 설립한 재단의 첫 프로젝트로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필하모니아의 소록도 공연을 기획했다.

1945년 창단 후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필하모니아는 리카르도 무티, 구스타보 두다멜, 로린 마젤 등이 지휘봉을 잡은 정상급 연주단체다.

필하모니아는 오는 5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협연 무대를 갖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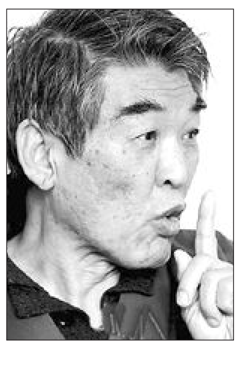
1968년 ‘하얀 모래의 꿈’으로 데뷔한 조용필은 40년간 ‘돌아와요 부산항에’, ‘킬리만자로의 표범’, ‘단발머리’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한국 최고의 가수다.

해마다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나온 조용필은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에서 대규모 공연을 펼치며 전국투어에도 나선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람들의 천태만상 시에 담아

고희 맞은 김지하 시인 ‘시삼백’ 출간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집인 ‘시경’(詩經)은 이전에 전하던 시에서 간추려 공자가 311수로 정리한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그 중 6수는 제목만 남아 실제 오늘날 전하는 작품은 305수다.

고희를 맞은 김지하 시인이 지난해 5월 출간한 시집 ‘못난 시들’ 이후 쓴 신작 시 305편을 모아 ‘시삼백’(전 3권·자음과모음)을 냈다. 시집 제목은 ‘시경’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다.

김 시인은 “공자는 당대 민초들의 찬가나 정치적 비판시 외에도 노래와 이야기, 교훈적인 시를 섞어 백화제방(百花齊放)을 시경으로 들려 올렸다”며 “다양하고 복잡한 천태만상을 시에 담았다”고 말했다.

시인은 이번 신작 305편 중 200여 편은 이야기(賦), 노래(興), 교훈적인 것(比), 풍자(諷), 초월적인 명상(神) 등 5개 양식으로 나눴다. 구분하기 힘든 나머지 100여 편은 시인이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별명인 ‘땡’, “구린내 나는 상상력의 영역”이라는 의미에서 ‘똥’, 세상이 마음에 안 들거나 사는 데 영 재미가 없는 차원을 지적했다는 ‘뚱’으로 이름 붙였다. /연합뉴스

서경배(왼쪽) (주)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가 권근술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이사장에게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에 3억 기부

아모레퍼시픽, 7년째 北 어린이돕기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대표이사가 7년째 사재를 들여 북한 어린이 돕기에 나섰다.

서 대표이사는 최근 서울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북한 어린이 지원단체인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에 3억원을 기부했다. 이 기금은 서 대표이사가 1억5천만원을 출연했고, 아모레퍼시픽이 매칭기프트 금액으로 1억5천만원을 더했다.

서 대표이사는 지난 2004년부터 북한 어린이 영양 개선과 보건서비스 증진을 위해 유니세프에 사재를 기부해왔다. 2008년부터는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를 통해 몸이 아픈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되는 기금은 소아병동 환자들을 위한 링거액 생산설비 원료와 항생제, 난치병 치료 의약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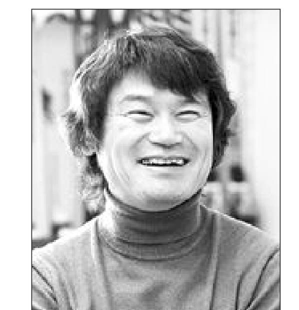
LIG손보 보험왕에 광주중앙지점 김은희씨

LIG손해보험 광주중앙지점 김은희(46)씨가 ‘2010골드벰버’ 시상식에서 대리점 부분 매출 대상을 수상했다.

김씨는 2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1억2천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려 상금 2천만원을 받았다. 신협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LIG손보에 입사한 지 15년 만에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설계사부문 매출 대상은 지난해 20억7천만원의 실적을 낸 금천지점 정희숙(55)씨가 선정됐다.

“장애인에 꿈·희망주고 U대회 성공 기원”

김홍빈씨, 안나푸르나 초등 60주년 맞아 재도전 등정길



안나푸르나(8,091m)는 처음으로 인간에게 정상을 내준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다. 1950년 모리스 에르조그가 이끄는 프랑스대가 그 은밀한 기쁨을 맛봤다.‘인류 최초의 8,000m’라는 의미에서 ‘프리미어(Premier) 8000m’라고도 불린다.

초등 60주년을 맞는 안나푸르나에 산악인 김홍빈(47·송원대산악회OB)씨가 재도전한다. 김씨는 ‘2010 마나슬루·안나푸르나 원정대’를 이끌고 22일 출국, 네팔 카트만두로 향한다.

원정대장을 맡은 김씨는 셰르파들과 함께 다음달 1일 네팔 북부에 위치한 세계 8위의 고봉인 마나슬루(8,163m) 4,800m지점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한 데 이어 북동릉에 3개의 캠프를 차례로 구축한 뒤 정상 공격에 나선다.

이어 다음달 말께 포카라를 거쳐 안나푸르나로 이동해 2개 봉 연속 등정을 시도한다. 안나푸르나(북동릉) 정상 공격일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일인 오는 5월 18일로 잡았다.

두 산은 김 대장에게 낯설지 않다. 마나슬루는 지난 2000년, 안나푸르나는 지난해 각각 도전해 정상을 목전에 두고 악천후로 후퇴한 바 있다.

김 대장은 “2개 봉 모두 이미 등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를 살려 안전하고 성공적인 등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원정을 통해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장애인들에게는 좌절극복의 의지, 꿈과 희망을 심어준다는 각오다.

세계 7대륙 최고봉에 이어 ‘8,000m급 14좌 완등’에 도전 중인 김씨는 지난해 5월 1일 세계 제7위 봉인 다울라기리(8,167m) 정상을 밟아 가셔브룸Ⅱ와 시샤팡마 남벽(이상 2006년), 에베레스트(2007년), 마칼루(2008년)에 이어 히말라야 8,000m급 5개 봉을 등정했다.

이번 원정은 광주·전남비전21이 주최하고 광주시와 광주시산악연맹, 광주신세계, 광주은행, (주)미주산업 등이 후원한다.

한편 올 봄 안나푸르나에는 ‘여성 최초 8,000m 완등’을 노리는 오은선(44)씨와 에베레스트에 이어 두 번째 ‘코리안루트’ 개척을 시도하는 박영석(47)씨, 고(故) 고미영씨의 히말라야 원정 동료였던 김재수(49)씨, 한국도로공사 산악팀 등 국내에서만 모두 6개의 원정대가 도전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물건 사지 않는 고객에게도 정성과 친절 다 했지요”

‘전국 친절왕’ 뽑힌 광주신세계 제남숙씨

친절함 하나로 백화점 매장 매출을 4배까지 끌어올린 여성이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여성의류 브랜드인 ‘쥬크’의 숍마스터 제남숙(37)씨다.

제씨는 광주신세계백화점 ‘쥬크’매장에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매출 성장률을 평균 200~400%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 결과 제씨는 최근 신세계백화점이 전국점포를 대상으로 선정한 ‘2월의 친절왕’에 뽑혔다. 전국에서는 146번째,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는 14번째 친절왕이다.

제씨는 친절왕 선정 비결로 ‘고객입장에서 생각하기’와 ‘비구매 고객에게 친절하기’를 꼽았다.

제씨는 “고객들이 굳이 옷을 사지 않아도 마음 편하게 매장에 머물러 가실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며 “고객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문제들도 더 잘 풀렸고 저 역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겁게 일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객의 편의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자세가 몸에 익어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9년 동안 백화점 친절왕을 비롯해 판매왕 등 상도 6차례나 받았다.

세일즈 비결을 묻자, 제씨는 “많이 팔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고객에게 필요하면서도 어울리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다보니 단골 고객이 늘었다”며 “저를 비롯해 매장 직원들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씨는 “가족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도움으로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매장의 매출을 억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이 1998년부터 뽑기 시작한 ‘친절왕’은 매출 실적뿐만 아니라 고객 불만사항이 접수된 적이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종친회

▲2010년도 고령신씨 전남 서부 광주종회(회장 신란식)총회=27일(토) 오전 10시30분 광덕고등학교 2층회의실. 010-8625-9988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24시간 전화상담(1588-9191)=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일반면접 상담, 위기 가족문제, 자녀문제, 자살 등 상담. 062-223-9191.

▲사주 쉽게 배울 분 개인·단체 환영=광주시 북구 우산동 자담역리학회. 062-263-0208.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위기지원(출산·양육·응급상황발생시 아이병원비·생필품),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 (http://gj-dongfc.familynet.or.kr/)

▲발관리 전문 상담=무겁고 피곤한 발, 각질, 무좀, 갈라진 발, 붓는 발 등. 광주시 북구 풍향동 백림약국 탑정형외과 옆 베네슈. 062-266-6657.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복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료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엘 우산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모집

▲우리문화 사랑회 회원 모집=전통문화를 애호하는 20세 이상 일반시민. 매월 24일 월례회 및 문화답사, 학술발표회 등 예정. 016-686-6491.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 모집=문해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디딤돌 장애인야학 교사·학생 모집=초·중·고 졸업을 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치4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스키동호회 설천클럽 회원 모집=광주에 거주하는 30~40대 남녀. 011-635-1400.

▲광주FC 축구회원 모집=매주 토요일 오후 운암동 서강고 운동장. 017-656-3431.

▲한마음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 모집=장구, 징, 꽹과리, 북 함께 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악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한국웃음요가연구소(소장 김영식 박사) 국제 웃음요가 지도자 양성 수시 모집=웃음치료, 웃음요가 무료 상담, www.hahayoga.co.kr 062-381-8254, 011-9374-7482.

▲늘 기쁜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 모집=초등학생, 방과 후 숙제 및 학습 지도. 062-511-6771.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무진농악단·은빛국악단 회원 및 강습생 모집=풍물반(수·오후 3시), 난타반(목·오후 3시), 장구초보반(화·오후 7시30분), 중급반(월·저녁 7시30분). 062-523-0474, 010-2658-0876.

▲북구 한울복지재단 가곡 노래교실 ‘참고운소리단’ 회원 모집=55세 이상 가곡을 사랑하는 남녀. 010-9886-9775.

▲장애인 체육 동호인 모집=광주시장애인체육회 방문 및 홈페이지(www.gjsad.or.kr), 전화 상담후 신청. 062-384-5544.

▲놀이패 ‘신명’ 단원 모집=연극·탈춤·풍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 신청자 모집=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문의 061-373-8865.

▲광주 아버지합창단원 모집=광주 거주 합창 좋아하시는 남성,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연습, 011-602-7354.

부음

▲양봉선씨 별세 이상근·규·대성·효숙·인길·영조씨 모친상=발인 23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김화순씨 별세 김진선씨 모친상 김재식·경범·영숙·지숙·미숙씨 조모상=발인 22일(월)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이현재씨 별세 정철·희철·성철·종철·수철씨 부친상=발인 22일(월)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이남수씨 별세 기만·경연·은정·은실씨 부친상=발인 22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